

남재현 해수부 차관, 양식 현장 방문해 고수온 어업재해에 철저한 대비 강조

- 고수온 등 어업재해 선제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

남재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23일(목) 제주도 양식어가를 방문하여 사료급이, 사육밀도 조절 및 고수온 대응 현황 등을 점검하고 어업인을 격려했다.

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수온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이다. 남 차관은 양식장 현황을 면밀히 살피면서, △ 저층해수 공급시설, 액화산소 공급장치 등 고수온 대응장비 작동 현황을 점검하고 △ 관리요령 준수 및 즉시 신고 등을 당부하였다.

남 차관은 이 자리에서 “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수온 상승이 빨라지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치밀한 사전 대응이 절실한 시점”이라며, “고수온 발생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, 해수부와 지방정부, 어업인이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대응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한편, 해수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고수온 재난 예·경보 ‘경계’ 단계를 발령하고 고수온 비상대책반을 통해 현장 대응상황을 매일 점검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어촌양식정책관	책임자	과 장	정기원 (051-773-5610)
	어촌양식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김 환 (051-773-5392)